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4-139
----------	--------

발의년월일 : 2024. 11

발의자: 고병준, 강동오, 권영숙, 권인순,
김승수, 남해석, 백남환, 신종갑, 안미자, 오옥자,
이상원, 이한동, 장정희, 차해영, 채우진, 최은하,
한선미, 홍지광

1. 주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최근에 공무원 연금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퇴직 공무원의 소득 공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공무원 연금의 수급 기준은 현재 만 60세인데 공무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7세 이하로 공무원들이 퇴직 후 일정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나. 또한, 정년퇴직 이후 바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소득 공백 퇴직 공무원이 2022년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이미 1,700명가량의 정년 퇴직자가 1년 이상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 시기가 뒤로 미뤄지면서 소득 공백 퇴직 공무원은 앞으로 점차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공무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라. 따라서 퇴직 공무원들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바, 마포구의회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임

3. 이송처

-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장, 행정안전부장관, 전국시군구, 전국지방자치단체의회, 마포구청장(행정지원과장)

4. 붙임 :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마포구의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퇴직 공무원들의 소득 공백 해소 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이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합의함에 따라 공직사회는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을 인하하는 등 연금 개정을 받아들였다.

이렇듯 당시 연금 개정과정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 대타협안을 수용한 것은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함이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방안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지난 2년간 약 3,600명의 퇴직 공무원들이 소득 공백 상태로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2032년까지 무려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퇴직 후 소득 공백을 겪게 되는데 이는 퇴직 공무원 개인의 생활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의 사각지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대정부교섭 당시 퇴직자를 일반임기제로 재채용하기로 합의하고 올 상반기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해 하반기에는 시행하기로 했음에도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퇴직 공무원들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들의 헌신이 퇴색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퇴직 공무원의 안정된 노후와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퇴직 공무원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퇴직 공무원의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즉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무원 퇴직자가 각종 정부 사업과 민원 업무 등에 일 반임기제로 재채용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무원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 건의한다.

2024. 1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